

2022 지구촌교회

# 가정예배순서지



Loving Jesus,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Sharing Jesus!

**VOL.13**  
2022 07-08

# 독립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복음성가

지 319장  
축복의 사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25-36

- 25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 26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 27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 28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 29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족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 30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 31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 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 33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 34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 35 그 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 36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1.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는 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가 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무려 1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고 이제 독립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독립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라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27~28) 라반은 그동안 야곱을 통해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라반은 자신을 떠나려는 야곱에게 그의 품삯을 스스로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가져갈 뭇을 스스로 정하라고 하자 야곱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 점 있고 아롱진 것을 자신의 뭇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은 희고 염소는 검은 것으로,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은 매우 적습니다. 유전적으로 단색 동물에 비해서 점박이가 태어날 확률이 매우 적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뭇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주는 보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성도의 삶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세상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 가정에 축복의 통로는 누구인지 한 사람을 뽑아보세요.

#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복음성가

지 206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37-43

- 37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흥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 38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 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
- 39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 40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 41 튼튼한 양이 새끼 뱌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 42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 43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1. 흰 양들만 찢던 야곱에게서 희지 않은 양이 태어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오랫동안 양을 쳐온 야곱과 라반이 이를 모를 리 없었고, 라반과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심지어 라반은 자신의 양 떼와 야곱의 흰 양 떼를 서로 섞이지 못하도록 사흘 길이나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야곱은 자신의 흰 양들이 새끼를 뱉 때, 그 앞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흥나무의 푸른 가지들의 껍질을 벗긴 얼룩얼룩한 나무 껍질들을 놓았습니다. 그것이 새끼 양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새끼양들은 얼룩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양이었다는 점입니다.
  
2. 야곱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도 대략 4천 년 전의 이야기로 생물학이 생기기 훨씬 이전의 시대입니다. 야곱이 행한 이 행동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야곱은 자신이 알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분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단지가만히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야곱의 노력"도 우리들의 노력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리석어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열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가 일하실 것을 믿고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이 해주시길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문제를 위해 드려야 할 나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 라반을 떠나는 야곱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복음성가

지 345장

주님과 같이

- 01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 02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 0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 04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 05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 06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 07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삷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 08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샅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샅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 09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 11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 12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 13 나는 뵤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 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 14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 15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 16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1. 새로운 계약을 맺고서 야곱의 재산이 폭발적으로 늘어 라반을 위협하게 되면서 라반과 아들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음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야곱이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오랜 광야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안색이 변할 때 우리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위기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잉크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모험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러브콜입니다. 변화는 항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는 순종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떠나야 합니다.
  
2.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삼촌 라반과 결별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레아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한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길 원하십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라반과 동행하면서 야곱은 많이 훈련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삶에도 하나님은 라반과 같은 사람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상대해야 할까요?

# 하나님의 두 떼 vs. 나의 두 떼



##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 복음성가

지 68장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1-12

- 01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 02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 03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 04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 사오며
- 05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 06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 07 야곱이 심히 두려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 08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 09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 10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 11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 이니이다
- 12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쉼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 야곱은 귀향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 외에도 ‘두 진영’, ‘두 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야곱은 자신의 소유인 양과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사백 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오는 에서가 자신을 공격할 경우에만 떼라도 살리기 위해 그의 장기인 잔피를 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두 떼’를 믿고, 자신의 ‘두 떼’를 나누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일 앞에 섰어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마하나임을 보내셔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어리석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야곱은 자신의 얇은 지혜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없음을 이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야곱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지난날 자신의 얇은피를 의지하며 살아온 불신앙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성패가 자신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하나임, 즉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고 계십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 떼’를 보내셨음에도, 나는 나의 얇은피로 ‘나의 두 떼’를 나누고 있지 않나요?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두 떼’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 봅시다.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24-32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복음성가

지 395장  
축복하소서

-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 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 32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찢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1.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압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 형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큰 잘못을 했으니 각오를 했겠지만 두려움이 컸을 것이고, 번뇌와 고독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알 수 없는 누군가를 상대하며 밤새 씨름을 했고, 그 결과 엉덩이뼈를 크게 다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결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리며 축복을 구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축복을 얻어냅니다.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은 형 에서를 이길만한 강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나와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임수 가득한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인생의 남은 여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2.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뜻)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서 세우신 민족,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존귀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우리로부터 또 다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기도합니다.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원수를 사랑하라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복음성가

지 162장  
사랑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43-48

-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 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1.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대방과 나와서 관계, 상대방의 사람됨,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1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16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더 사랑해야 하는 사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2.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더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기록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처럼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원해 봅시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지금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 은밀하게 구제하라



##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 복음성가

지 339장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1-4

- 0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 0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 0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 0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  
리라





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구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금식’에 대해서 각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종교적 행위들을 행할 때에 그것이 자신들의 의를 행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에 있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신 말씀 중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의를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는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과 상충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경건한(선한,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듣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착한 행실을 하는 것과 경건에 대한 평판을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들 때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하며,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의 신앙의 모습 중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게 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을까요??

# 이렇게 기도하라



##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 복음성가

지 182장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5-15

- 0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 0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0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 0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 0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공급할 책임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권리로 아버지께 필요를 아뢰 수 있습니다.
2.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미리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3.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며 관계의 묶임을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여러 시험을 주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나의 기도생활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세요.

# 금식과 재물



##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 복음성가

지 96장  
내가 주인 삼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16-24

- 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1. 믿음은 보이는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기에, 사람들 눈에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비쳤습니다. 금식을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금식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새 교훈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닌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금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는 금식이 진짜 금식이요, 진짜 믿음입니다.
  
2. 성경은 재물을 가리켜 ‘맘몬’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적 위치에 놓습니다. 이는 재물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이 있으면 먹고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기에, 사람들은 자기 생명까지도 돈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눈이 성하면’은 ‘하나의 초점’이라는 뜻이고, 23절의 ‘눈이 나쁘면’은 ‘여러 개의 초점’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초점을 가진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은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 이시기에, 우리가 ‘하나의 초점’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는 ‘하나의 초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지난 한 주간 가족들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가정 예배가 고통받는 가족에게 끼치는 영향



환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 가족은 더욱 한 자리에 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위로는 공허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달려 나갑니다. 고통 속에서 성도들은 더욱 긴밀히 결속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매일 가난에 시달리지만 믿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가족들의 굶주림과 추위를 채워주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복을 누립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자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것이 준비되지 않더라도 가정예배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도 큰 시련이 발생합니다. 투자한 돈을 일거나 갑자기 파산하기도 합니다. 의로운 사람도 경제적으로 가난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움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테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1:21)


가정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훔쳐 갈 수 없는 곳에 보배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안이 부유할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가정이라면 더욱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비록

눈에는 눈물이 글썽여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가정예배에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파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거룩한 것이 숨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해밀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거의 모든 가정에 교회가 있었던 시절에 태어난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두막집에서 성장한 그는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주위에 빙 돌아가면서 심겨진 감람나무들은 무럭무럭 자랐는데 그것들은 제일 먼저 그와 그의 아내가, 그 다음에는 새로 태어난 자식들이 하나님을 기리기 위하여 하나하나 심은 것들입니다. 그들의 가정 예배는 자식들이 모두 성장하여 출가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에도 혼자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아버지의 집에서 드리던 가정 예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그 전통을 계승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빈집에서 홀로 지내는 그는 마치 자기 곁에 가족이 둘러앉아 있거나 하듯 매일 아침저녁마다 떨리는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였습니다.”

재앙이 발생하여 모든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음은 복입니다. 병든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는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환자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으로 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은 언젠가 초상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은 그 집에 초상이 났을 때 가장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인 가족의 모습은 매우 숙연합니다. 이때 기도와 찬송은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갑작스러운 사별을 당했을 때는 눈물이 솟구쳐서 잠시나마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예배의 영향은 고통받는 가족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저자: 제임스 W. 알렉산더 미션윌드)의 내용을 요약하여 가정예배의 축복을 연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하브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축복기도 · 중보기도

아내를 위해  
가장의 축복기도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아내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며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가족들을 위한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알고 계시오니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고,  
충만한 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아내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아내가 남편에게 :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남편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여호와께서 자녀이름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이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자녀이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자녀이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24-26]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름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실과 지혜로 하루를 채우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하루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족이 주님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늘 건강하도록 함께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늘 가까이 동행해주세요.  
서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원은 저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안아주며 사랑 표현하기

3천 중보 용사 한맘 기도 | 각 가정에서 회개, 레위, 닐시, 미션, 라파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